금융부문서 두각·자회사들 성장세

카카오뱅크 상장예비심사 통과
카카오페이·엔터 등 상장 추진
카카오손보도 보험업 예비 인가
네이버와 유통 K콘텐츠 등 경쟁

김범수 카카오 의장

지난 2010년, 이제는 국민 메신저가 된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가 11년 만에 인터넷 대장주 네이버를 넘어 시가총액 3위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카카오 그룹의 상장사 시총 기준으로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이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액면분할로 국민주 중 하나로 떠오른 데다, 금융과 콘텐츠 등 자회사들의 높은 성장 가능성이 한 몫을 했다. 카카오는 향후 네이버와 국내외에서 경쟁하며 더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시총 3조4323억 차이 벌려

카카오는 18일, 전 거래일보다 4.73% 오른 15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역대 최고가로, 시총은 68조8091억 원으로 늘었다. 이는 삼성전자(480조5674억 원)와 SK하이닉스(90조6362억)에 이은 코스피 3위다. 네이버도 같은 날 2.18% 오른 39만8000원(시총 65조3768억 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카카오의 시총을 따라잡지는 못했다. 장마감 기준으로 15일 처음 네이버를 앞지른 뒤 점차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기준 양사의 시총 차는 3조4323억 원이다.

그룹의 상장사 기준으로 봐도 5위에 올랐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를 합한 카카오 그룹의 시총은 18일 기준 73조9344억 원이다. 삼성그룹(751조1009억 원)과 SK그룹(200조9109억 원), LG그룹(158조1144억 원), 현대차그룹(152조2861억 원) 다음으로 큰 규모다. 카카오 지분 약 23.92%를 보유한 김범수 의장의 평가액도 올해 2월 초 약 10조 원에서 약 15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증권가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탄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려 잡았다. DB금융투자는 14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도 15만2000원에서 18만2000원으로 높였다.

카카오와 네이버 시총 추이

	2014년 10월 14일 (카카오·다음 합병상장일)	2020년 12월 30일	2021년 6월 18일
카카오	7조8679억	34조4460억	68조8091억
네이버	24조9857억	48조470억	65조3768억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위 이미지). 카카오가 올해 초부터 시작된 거침없는 주가 상승에 힘입어 최근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올랐다. 사진출처 | 카카오톡 홈페이지

●자회사들의 연이은 상장 추진

카카오가 네이버 시총을 뛰어넘은 것은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한 2014년 이후 7년 여 만이다. 당시 카카오의 시총은 7조8679억 원. 네이버의 24조9857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양사의 시총 차이는 올해 초에도 약 13조 원 이상 벌어져 있었다.

카카오의 주가가 올해 들어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액면분할 효과와 함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등 자회사들의 빠른 성장세 덕분이다.

특히 최근엔 금융 부문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17일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카카오페이도 연내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영업 예비인가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그 밖에도 콘텐츠 사업을 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기업 카카오모빌리티도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곳곳서 격돌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총 3위 싸움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터넷 등 주요 사업 외에 금융, 유통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유통 부문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자상거래(e커머스) 관련 자회사인 카카오커머스를 다시 본사와 합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지그재그 인수 등 e커머스 부문을 강화하는 중이다. 혈맹을 맺은 신세계와 이베이 인수를 추진하고, CJ 대한통운과 곤지암, 군포, 용인에 잇달아 풀필먼트 센터를 오픈하는 등 유통 사업에 힘을 주는 네이버와 경쟁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웹툰과 웹소설 등 K콘텐츠를 가지고 맞붙었다. 최근에는 동남아 시장에서의 웹툰 경쟁에 불이 붙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웹툰'이 태국과 대만 시장에 론칭과 동시에 업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자, 네이버가 "다운로드 인기순위일 뿐 현지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것은 네이버웹툰"이라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5G보다 50배 빠른 6G…삼성·LG, 기술 선점 나선다

삼성, 美 6G 테라헤르츠 대역서 통신 시연 성공
LG는 '넥스트 G 얼라이언스' 의장사로 선정

2029년 경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이동통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 6G는 5G보다 빠른 무선 전송속도로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만물지능인터넷을 가능하게 할 수단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앞 다퉈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 주립대(UCSB)와 6G 테라헤르츠(THz) 대역에서 통신 시스템 시연에 성공했다. 테라헤르츠 대역은 100 GHz~10THz 사이의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파수 대역이 올라갈수록 넓은 통신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어 6G에서 요구하는 초고속 통신에 적합하다. 이 때문에 5G보다 최대 50배 빠른 1Tbps(1초에 1조 비트를 전송하는 속도)를 목표로 하는 6G 통신의 후보 주파수 대역으로 꼽힌다.

최성현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전무)은 "지난해 6G 백서에서 공유한 것처럼 테라헤르츠 대역은 6G 주요 주파수 대역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시연은 이의 상용화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삼성리서치 산하에 차세대통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5G 경쟁력 강화와 6G 선행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미국 주도 6G 연합에 참여한다. LG전자는 최근 미국통신산업협회(ATIS)가 주관하는 '넥스트 G 얼라이언스' 의장사로 선정됐다. 이기동 CTO부문 책임연구원(박사)은 이 단체의 애플리케이션 분과 의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넥스트 G 얼라이언스는 총 6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로 퀄컴, 노키아, HPE, VMware, MITRE 등이 의장사를 맡고 있다. LG전자는 향후 6G 관련된 선행 기술 논의 및 서비스 방향성 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애플리케이션 분과는 6G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한 기술 요구사항을 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넥스트 G 얼라이언스는 6G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창립한 단체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통신장비,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총 48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140GHz 통신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

한편 LG전자는 지난 2019년 'LG-카이스트 6G 연구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글로벌 무선통신 테스트 계측 장비 제조사 키사이트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6G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KT '클라우드 보안 백서' 발간

KT가 '클라우드 보안 백서'(사진)를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 중 처음 발간했다. 백서는 전담 보안조직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클라우드의 보안 체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사용자 보안 설정이 누락되기 쉽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었다. 클라우드 보안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 규제, KT 클라우드 보안 현황, 이용 가능한 보안 서비스 등을 설명한다.

KT는 고객이 관리하는 영역에 대한 매뉴얼 형식의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도 제공해 사용자가 손쉽게 따라함으로써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백서와 가이드는 'KT 클라우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LG전자, 세계 최초 83인치 올레드TV 출시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83인치 '올레드TV'를 출시하며 초대형 프리미엄 TV시장에서 올레드 대세화를 이끌겠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83인치 올레드TV(83C1·사진)를 이달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

이 제품은 4K(3840×2160) 해상도 올레드TV 가운데 가장 크다. LG전자는 48·55·65·77·83·88인치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올레드TV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70인치 이상 올레드TV는 한국 출시 모델 기준 지난해 7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LG전자는 초대형 올레드TV를 앞세워 고화질·대화면 프리미엄 TV 수요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83인치 올레드TV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2021에서 게이밍과 영상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각각 혁신상을 받아 2관왕을 차지했다. 이 제품의 국내 출하가는 1090만 원이다. LG전자는 이달 말까지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1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21일(월) 음력: 5월 12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오늘은 쥐가 쥐를 만난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시도하라. 오늘은 육해살 일이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 될 수 있다.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오늘은 재살일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하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가 돋보일 수 있다. 토끼가 쥐를 만나면 자묘형으로 풍파가 일어날 수 있다.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모함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자신의 반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용이 쥐를 만나면 처음에는 좋다.	냉전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갈수록 현재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은 쥐날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흰색 길방:서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오늘은 쥐날로 재살일이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오늘은 쥐날이다. 예술 분야에서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날이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원숭이띠는 지살로서 움직이려는 기운이 강하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므로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되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크게 이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오늘은 쥐날로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오늘 개띠생은 기발한 묘책으로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하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현실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엉켰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며 금전문제도 해결되니 경솔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자세가 더욱 필요한 날이다.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오늘의 날씨

21일(월)

서울	인천	춘천
0/0	0/0	20/70
18 / 28	18 / 24	18 / 27
강릉	**대전**	**전주**
70/40	0/0	0/0
19 / 22	19 / 30	19 / 29
광주	**대구**	**부산**
10/0	0/0	0/0
19 / 30	20 / 31	20 / 27
창원	**제주**	지역 / 강수 확률 (오전/오후)
0/0	0/0	날씨 / 최저 최고기온°C
19 / 30	21 / 27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03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